

'도우인시스', 코스닥 상장 절차 시동

- ▶ UTG 글로벌 톱 양산-공정 기술 도우인시스 코스닥 상장 본격화
- ▶ 디스플레이 폼팩터 기술 확보를 통한 글로벌 플렉시블 시장 선도할 것

<2024-11-26> 세계 최초 UTG 상용화 성공 기업 도우인시스가 코스닥 상장에 도전한다.

폴더블 UTG 글로벌 원톱 기업 도우인시스(대표이사 옥경석)가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상장 주관사는 키움증권이다

2010년 설립된 도우인시스는 '세계 최초 폴더블 초박형 강화유리(UTG)' 상용화와 대규모 양산에 성공한 K-디스플레이 핵심 소재기업이다. 독자적인 UTG 제조 원천 기술과 공정 풀라인업을 확보해 높은 수율의 대규모 양산 역량을 갖춰 견고한 진입장벽을 구축했다. 핵심 제품으로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용 초박형 강화유리(UTG) 커버 윈도우가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공급망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업체들에게까지 공급하며 시장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도우인시스가 독자 개발한 핵심기술은 ▲초박형 글라스(UTG, 25~100 μ m) 제조공정(화학 강화, 절단, 표면처리 등) ▲중·소형, 대형 UTG 전용 공정 설비 설계 및 제작 ▲UTG 핸들링 노하우 및 전용 지그 제작 ▲3D 윈도우 글라스 성형, 강화, 인쇄, 필름 라미네이션 공정 기술 등이다.

폴더블 UTG 국산화에 성공한 첫 해인 2019년에 매출액 83억 원을 기록했다. 이후 국내 및 중국업체들에 대한 폴더블 적용 확대로 세계 최대 규모 폴더블 UTG 물량을 선점함으로써, 매출액은 2020년 539억 원, 2023년 950억 원으로 크게 성장시켰다. 이러한 급성장의 배경은 ▲세계 최초 UTG 양산을 통한 폴더블 디바이스 기술 리더십 보유 ▲폴더블시장 커버 윈도우 세계 시장점유율 1위 ▲스마트폰 핵심 부품 제조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시장지배력이 강한 고객사와의 현지 SCM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도우인시스는 새로운 폼팩터 적용기술 등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로 미래형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과 응용산업 확대에 맞춘 사업다각화를 통해 지속성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도우인시스 옥경석 대표이사는 "도우인시스는 UTG 독자 기술과 양산 및 상용화 역량을 모두 갖춘 글로벌 선도 기업이다"라며, "디스플레이 폼팩터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인 기술력으로 플렉시블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Top-Tier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